

비정규직과 해고노동자의 벗, 백기완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직장갑질119 운영위원

2월15일 새벽 백기완 선생님의 사위 이종회 진보넷 대표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의 부고 소식. 코로나19 때문에 병마와 싸우고 계신 선생님을 1년 넘게 뵈지 못하고 있었다. 짐을 챙겨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선생님과 함께 한 시간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2010년 6월11일,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이 정리하고 철회를 요구하며 85호 크레인 위에서 150일 넘게 농성을 하고 있을 때였다. 백기완 선생님은 ‘희망버스’ 1호차에 올랐다. 새벽 1시 한진중공업, 선생님은 문정현 신부님과 함께 사다리를 타고 공장 담벼락을 넘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친구와 같이 용역경비들이 점거하고 있던 정문 담장으로 뛰어 올라갔다. 소화기와 방패를 던지며 저항하던 용역들이 담장 밑으로 떨어졌다. 담장 위에 올라온 백기완의 불호령이 부산 앞바다에 찌렁찌렁 울렸다. 그해 10월까지 백기완 선생님은 다섯 번의 희망버스에 올랐다. 정리하고는 철회됐고, 백기완은 309일 만에 살아 내려온 김진숙의 손을 맞잡았다.

백기완과 희망버스

2008년 기륭전자 비정규직, 2009년 쌍용차 정리하고 투쟁을 계기로 멀리서만 봤던 백기완 선생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다. 2008년 기륭 김소연 분회장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94일 간 단식투쟁을 벌였고, 이를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비없세)가 만들어졌다. 백기완 선생님은 비없세 활동가들의 요청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고, 비정규직·해고노동자들은 선생님의 ‘절친’이 됐다.

2012년 4월5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서울 대한문에 분향소를 차렸다. 정리해고를 당한 동료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서른 번째 죽음.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였다. 경찰과 열흘 밤낮을 싸워 분향소가 만들어졌다. 백기완 선생님은 분향소를 출근하다시피 했고, 대한문 분향소는 정리해고 투쟁의 ‘성지’가 됐다. 경찰이 농성장을 철거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백기완 선생님은 현장을 찾았고, 해고노동자들의 곁을 지켰다. 백기완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든든한 뒷배였다.

2013년 7월20일,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자 천의봉, 최병승이 송전탑 위에서 200일 넘게 농성을 하고 있을 때였다. ‘현대차 비정규직 희망버스’가 울산으로 향했다. 폭염과 장거리 여정으로 여든이 넘는 백기완 선생님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컸다. 그런데 선생님은 희망버스에 오르겠다고 고집하셨다. 새마을호 두 량을 빌렸다. 선생님을 설득해 ‘희망열차’를 타고 울산으로 향했다. 울산공장 옆을 지나가는 기차에서 백기완 선생님이 천의봉과 통화해 힘내라고 응원했다. 열차가 경적소리를 내며 지나갔고, 천의봉, 최병승은 손을 흔들었다. 4,000명의 희망버스 승객들이 현대차 공장 앞에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싸웠다. 현대차 용역경비들이 자동차 부품을 던지고 소화기를 뿌렸다. 백기완 선생님은 분말가루를 하얗게 뒤집어쓴 채 현장을 지켰다.

장례식과 돌잔치

2013년 1월 28일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윤주형이 “조직도 노조도 친구도 동지도 차갑더라구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동료 해고자들은 고인의 원직복직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정규직노조는 ‘재입사’로 합의했다며 장례를 강행하려고 했다. 백기완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장례식장에 내려와 조문을 하고, 정규직노조 간부들을 불러 호통을 쳤다. 원직복직 합의가 이뤄졌고, 11일 만에 장례를 치렀다.

2013년 10월31일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수리기사 최종범이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증거를 모아 삼성의 불법을 알렸지만 언론에 한 줄 나오지 않았다. 최종범의 아내가 젓먹이 아이를 떠나 삼성 본관 앞에서 사과를 요구하며 싸웠지만, 삼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가족을 설득해 돌잔치를 열었다. 사연을 들은 백기완 선생님이 눈물을 쏟아냈다. 돌잔치에 참석해 최종범 딸에게 금별을 선물했다. 소식을 들은 각계각층에서 돌 선물을 보내왔다. 돌잔치 소식이 언론에 실렸고 노사간 교섭이 진척돼 해를 넘기기 전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스승의 날

2014년 5월 15일 기륭전자 농성장. 비없세 활동가들과 비정규직-해고노동자들이 백기완 선생을 위한 작은 잔치를 마련했다. 기아차에서 해고됐다가 복직한 비정규직 김수억이 복직 첫 월급을 내놨다. 기륭전자, 쌍용차, 한진중공업, 현대차 비정규직, 유성기업, 삼성전자서비스 등 백기완 선생님의 벗들이 함께 했다. 선생님이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한 영상이 상영됐다.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백 선생님은 “그동안 해온 게 있다면 괴로움을 당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니 정말 고마울 따름”이라며 “박근혜 정권과 재벌이 지배하는 체제를 깨부셔야 한다”고 외쳤다.

2014년 유성기업 희망버스, 세월호 진상규명 투쟁, 2015년 백남기 농민 투쟁, 2016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건립을 위한 <두 어른 전>, 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2019년 태안화력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 투쟁. 백기완 선생님이 머물던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곳이었다. 아픔을 딛고 저항하는 현장이었다. 버선발들의 연대의 마당이었다. 너도 나도 일하고, 너도 나도 올바르게 잘사는, ‘노나메기 세상’을 향한 길이었다.

마지막 길

아침 일찍부터 장례식장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조화가 도착해 있었다. 장례위원회 회의를 열어 고인의 뜻에 따라 모든 조화와 조기를 돌려보내기로 했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고 했던 선생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권력자들이 ‘조화 정치’로 선생님의 정신을 훼손하게 되돌 수는 없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도, 비정규직도 똑같이 줄 서서 조문하게 했다.

백기완 선생님과 같이 민주화운동을 하다 권력의 품에 안긴 사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선생님과 의 일화를 올리며 ‘추억 팔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방송 카메라 앞에서 부끄럼도 없이 백기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영정사진 위에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는 현수막을, 조문을 위해 기다리는 곳에 “네 배지만 부르고 네 등만 따신 놈들아”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보도자료에 정치인들의 이름은 한 줄도 올리지 않았다.

장례 셋째 날 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을 왔다. 장례위원회는 “선생님이 마지막 글로 남기신 말씀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진숙 힘내라, 노나메기 세상, 노동해방이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 이것이 선생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여기 40일 넘게 단식한 송경동 시인도 와있는데, 선생님의 뜻인 김진숙 복직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을 나서는 자리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피눈물’, ‘노동존중이 어디 있습니까?’라는 종이를 들고 “문재인 대통령, 노동존중은 어디로 갔습니까? 비정규직의 피눈물이 보이십니까?”라고 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비없세 활동가들이 백기완 선생님을 찾았을 때, 선생님은 앞으로 ‘벼슬아치’와 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 만에 비정규직과 만난 첫 자리, 백기완 선생님은 어떠셨을까?

노동해방

지난해 11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비없세, 비정규직 이제 그만,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등 사회단체와 현직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전태일신문》을 만들었다. 5년 전이었던 2015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공장 안 굴뚝에 올라 농성을 벌일 때 《굴뚝신문》을 만들었고, 백기완 선생님이 ‘저 굴뚝 위에 서린 새뜸이여’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를 실었다. 5년 뒤 지병 악화와 호흡기 시술로 말씀을 하지 못하시게 된 선생님은 《전태일신문》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보름에 걸쳐 하루에 한 획씩 써서 ‘노동해방’이라는 글을 보내주셨고, 광고를 만들어 신문에 실었다. 병간호를 하고 있는 채원희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의 훈이 담긴 글을 잘 받아서《전태일신문》에 실었다고, 신문을 선생님께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전화기 너머에서 ‘어’, ‘어’ 하는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울컥했다.

앞서서 간간 백기완 선생님은 떠났지만, 그의 뒤를 따르는 또 다른 백기완, 불쌘꾼(혁명가)들이 노동해방을 향해 오늘도 싸우고 있다.